



2024년 1월 14일(제1176호) 연중 제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미루름과 행복”

오늘 복음에는 안드레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분을 유심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스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고민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행복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길을 정하는데 선택의 기준에는 어떻게 살아야 나답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이어서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 곁에 머무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또 그분 삶의 모습 안에 담겨있는 가치들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드레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메시지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묵으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하고 대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묵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자리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하

시는 행동을 함께 체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나서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감정을 느꼈기에 다음날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며 말하였을까요.

안드레아의 모습은 ‘묵는다’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만일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옆 침구에서 또는 옆집에서 머무르신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며 어떤 마음을 지니셨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곁에 묵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분과 함께 묵고 머무르는 가운데 느끼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묵으며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고 또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배워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며 행복해하시는 활동에 함께 참여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원신희(로마스) 신부
동해(육군 제22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1사무 3,3ㄴ-10.19

회 답 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 2 독 시

1코린 6,13ㄸ-15ㄱ.17-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 음

요한 1,35-42

영 성 제 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저는 저녁나절에 신자 몇 명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한 다음, 아기 세례에 이어서 대세받은 아기들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닭이 울 때 일어나 미사를 드릴 예정을 하고서, 영세 준비를 마친 어른 15명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 명이 넘는 포졸들이 마귀떼같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사를 거행하고 있는 집을 둘러싸더니 미사 가방과 성작 등을 빼앗아 가기 위해 제가 있는 방까지 들어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함께 있던 신자들이 비록 숫자는 그들보다 적었으나 그들의 침입에 완강히 대항하여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문을 빙 둘러싼 그들은 온갖 폭력을 휘둘러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신자들은 죽을힘을 다해 그들을 물리치느라고 일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쌍방 간에 부상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몇몇 신자들과 함께 방안에 있었는데 신자들의 도움으로 급히 미사 짐을 챙겨 치우고, 뒤 창문으로 재빨리 빠져 나와 캄캄한 밤을 이용하여 산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몇몇 신자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로 허둥지둥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서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는 복새통에 양편에 부상자가 많이 났고, 결국에는 외교인들이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격렬하게 싸우고 나서도 아무것도 강탈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겨 그 마을을 관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그 마을의 유력한 사람 5명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 바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8년 전에 신자가 된 그는 다른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하고 덕망이 높아서 그 마을(진밭들)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 아우구스티노라는 사람인데, 그 고을 원님인 관장 다음으로 제일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겨우 3년 전에 영세했는데 벌써 많은 외교인들을 천주교로 이끌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주동자이고 천주교를 전파하는 자라 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천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새로운 세상



여기서,
지금부터.

못 할 이유가 없지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요.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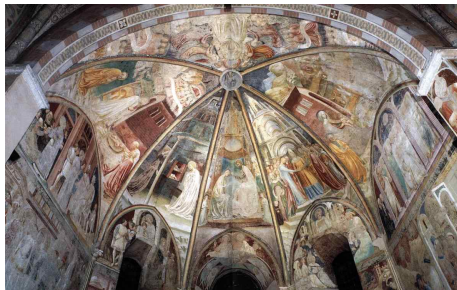
카스틸리오네 올로나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한, 중세에 지어진 이 성당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에 관련된 프레스코화로 내부가 장식되어 있다. 본 성당의 세례당 천장 및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강의 왼쪽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걸옷을 들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 걸옷을 탈의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중앙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머리위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보이고, 천장에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하느님이 이를 내려다 보고 계신다.

미솔리노 다 피니글리(1383년~1447년)
1435년경 제작, 프레스코화
카스틸리오네 올로나 성당, 이탈리아



아직 르네상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인물들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매우 생생하면서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다.



성당의 다른 부분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다양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세부도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주일: 진진 김상기 신부

◆ 교구장 동정

- 비승(항공사) 성당 사목방문
때: 1월 14일(주일)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및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신년하례식
때: 1월 18일(목)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